2025-05-08

US Comment

5 월 FOMC 리뷰: 서두를 필요 없다는 연준

SK증권 리서치센터

RA
원유승
ys.won@sks.co.kr
3773-9181

Fixed Income /Credit
윤원태
yunwt@sks.co.kr
3773-8919

5 월 FOMC, 기준금리 동결: 경제 전망 불확실성 확대

5 월 FOMC 에서 기준금리 4.25~4.50%로 만장일치 동결,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. 시장의 반응도 크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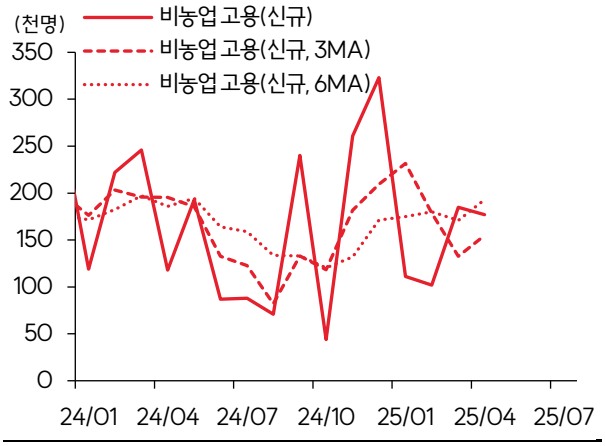
성명서 내 주요 변화는 ① 순수출 영향에도 실물 지표는 경제활동 확장을 보여주고 있음, ② 경제 전망 불확실성 '더욱' 확대, ③ 실업률과 물가의 동시 상승이 발생할 경우 그 리스크를 판단할 것 등이다. ①번 사항은 이번 회의에서 동결을 결정한 이유를 보여준다. 실물 지표가 아직 견조함을 보였기 때문이다. 프리뷰 자료에서 언급한대로 민간 국내 최종 판매의 성장 폭(3%)이 전 분기 대비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.

연준의 스탠스: Data Dependent, 서두를 필요 없다

관전 포인트였던 연준의 스탠스는 Data Dependent 에 기반해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. 관세정책의 여파로 경기와 물가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. 파월 의장은 3 월 FOMC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통화정책 수준이 대응하기 좋은 위치라고 발언했다. 추가인하 시점에 대한 시사도 없었다.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에 금리 경로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답변했다. 트럼프 행정부의 인하 압박에 대해서도 연준의 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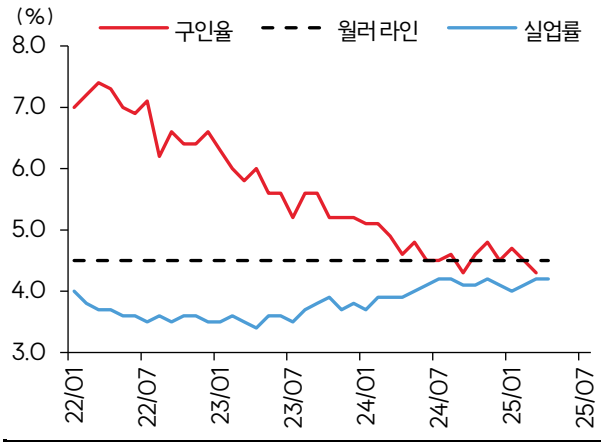
빠르면 7 월, 견조한 경기가 지속될 경우 9 월 인하를 전망한다. 선제적 대응이 없을 것이라는 연준의 태도, 1 분기 성장률의 상향 조정 가능성, 견조한 고용 지표 고려 시 실업률 지표 상의 명확한 상승이 나타나야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. 인하가 늦어질 경우 QT 종료, SLR 규제 개선 등 간접적인 완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.

[그림 1] 둔화 흐름이 뚜렷하지 않은 비농업 고용



자료: Bloomberg, SK 증권

[그림 2] 아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실업률



자료: Bloomberg, Fed, SK 증권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
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투자판단 3 단계(6 개월기준) 15%이상 -> 매수 / -15%~15% -> 중립 / -15%미만 -> 매도